■광주 온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 인터뷰

“광주와 독일 예술교류 적극 지원”

대담=박진현 문화생활부장

지난 9일은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베를린 브란덴브라크문 일대에서는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과 수십만 관중이 모여 베를린 장벽 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그날’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25일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가 광주를 방문했다. 자이트 대사는 ‘독일현대건축전시회’(광주시청)와 ‘통일독일 20주년 기념 사진전’(전남대 도서관)개막식에 참석한 후 26일 오전 부인 마리타 자이트 여사와 함께 광주일보를 예방했다.

-지난 9월 한국에 부임한 이후 첫 광주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인상이 궁금합니다.

▲주한독일대사로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사실 올 봄 광주에서 3개월간 생활

전남대에서 한국어 배워 고향에 온듯 친근한 느낌

한 적이 있습니다. 아그레망(외교승인절차)을 받기 전인 지난 4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3개월간 무등산과 전남지역을 여행해서인지 마치 고향에 온 것 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광주는 음식과 예술 등 곳곳에서 ‘전통’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주는 전통 문화 뿐 아니라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치르는 예술의 도시입니다. 독일 역시 카셀도큐멘타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등 미술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독일의 예술교류를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는 한국과 독일의 우호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독일현대건축전시회’와 ‘통일독일 20주년 사진전’은 이 같은 예술교류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독일현대건축전시회’를 두번째로 광주에서 개최한 것도 광주 시민들에게 빨리 독일문화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들이 늘어난다면 두 나라의 예술교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2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가 국내외에 미친 영향을 말씀해주신다면.

▲자이트 대사는=1952년 슈투트가르트 출신으로 1973~80년까지 튀빙엔, 제네바, 본 대학에서 법학, 역사학, 정치학을 수학했다. 파리국립행정학교(ENA)를 거쳐 82년부터 외무부에 들어간 후 모스크바(1986-89), 나이로비(1989-91), 브뤼셀소재 나토 상설대표부(1991-94), 워싱턴(1998-2002) 등에서 근무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독일대사(2006-2008)를 지냈으며 지난 9월 한국에 부임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단순히 동서독의 틀에서 보면 안됩니다. 독일 통일은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구 소련연방 등 동유럽을 ‘변화’시키는 등 유럽 재통합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의 압제로 부터 고통받는 많은 나라에 민주화와 평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의 뿌리는 독일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보내준 이력서를 보니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케냐 나이로비 주재 독일대사관에 근무하셨더군요. 베를린 장벽붕괴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1989년 3월 나이로비로 자리를 옮기기 전 소련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3년간 소련에서 생활하면서 “소련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결코 독일의 통일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9일 나이로비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곧바로 아내에게 세 아이들과 나이로비에 남아 있으라고 말하고 저 혼자 역사적인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베를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물론 아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웃음) 바이마르 등 동독지역과 브란데부르크 문 앞을 거닐었던 그날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붕괴는 냉전종식과 통일독일이란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서독인들에게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르는 부담도 안겨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독일 통일 이후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돈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통일비용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독일인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통일 당시 동독 주민 1인당 GDP가 서독 주민의 40%에 불과해 두 지역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일독일로 인해 얻은 이점(benefit)도 그에 못지 않게 많습니다.

남북간 문화적 격차 줄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야

낙후된 동독지역의 도시개발은 물론 각 도시의 인프라 구축 등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통일 이후 한 때 경제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 독일은 유럽연합 가운데 가장 안정된 경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위기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통일전의 독일과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아픔을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단과 통일을 겪은 경험을 살려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제 경험이기도 하지만 독일인들에게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미처 통일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식 통일모델 보다는 지난 97년 중국반환 이후에도 정치, 경제 등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홍콩과 중국의 관계가 한국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통일은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지식인들 역시 통일 이후의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언어, 문학, 음악 등 문화적 격차와 이질적인 정서를 줄이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성공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CT연구원 광주 설립 약속 지켜라”

〈문화콘텐츠기술 연구원〉

유치위 “李대통령이 공약 이행 로드맵 밝혀야”

‘CT(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유치위원회(공동대표 김상윤)’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CT연구원을 광주에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인력과 운영예산을 대폭 감축키로 한데 이어 최근 법정계획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명시돼 있는 CT연구원 설립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사업의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CT연구원은 연 사업비 1천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프라로, 광주 문화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될 국책연구소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CT연구원 대신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해 CT연구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방침을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문화산업 육성 공약의 이행을 위해 CT연구원 광주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CT연구원 광주 설립이 무산된다면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핵심 알맹이가 빠진 채 문화전당만 남게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상윤 CT연구원 유치위원회 공동대표는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문화산업을 통해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발전해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프라”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폭탄테러의 잔해 26일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파손된 차량이 옮겨지고 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은 이날 길가에 매설된 폭탄이 터지면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부상했다고보도했다. /연합뉴스

슬로시티 연계 사회적기업 육성 시동

전남도 ‘관광자원화’ 설명회

전남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Slow City)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연계해 그 지역 특산품을 수익모델로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는 26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슬로시티 4개 지역 주민 대표, 슬로시티 자문위원, 슬로시티 추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슬로시티 추진협의회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인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장근일 (주)드림경영컨설팅 대표이사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인증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간 ‘슬로시티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활용해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의원 조선대 특강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박지원 의원(목포)이 27일 조선대 정책대학원에서 특별강연한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조선대 경상대학 8층 세미나실에서 최고경영자과정 원우회 초청으로 ‘리더와 참모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에서 박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의 덕목과 참모의 기능·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